

올림픽 프레로 열린 달마오픈 〈Pre〉 스키장서 젊은 달마를 보다

설원 위 펼쳐지는 스노보드 선수들의 묘기에 관전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온다. 불교계가 개최한 대회인 탓에 유독 불자선수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사진은 불자인 설송 유대해 선수가 하드파이프 첫 점프 지점에서 기술을 펼치는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한 유소년 선수들의 모습.


스님과 참가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장 출발선의 조계종 플래카드가 이채롭다.



한 선수가 마치 날듯이 기술을 펼치고 있다.

제14회 달마오픈 챔피언쉽 3월 1일 개최…유소년 등 160여 명 참여

"와아!" 하얀 반원형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장 위에 선수들의 묘기에 가까운 기술이 펼쳐질 때마다 탄성이 터져 나온다. 멋진 기술에 빠진 것도 잠시 '넘어져 다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순간, '꽈당'. 지켜보는 스님들과 불자대중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소리가 흘러 나왔다.

"아아, 저 선수 다리가 풀렸어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요?" 중계진의 재치있는 안내방송이 흘러 나오고 경기장 내에는 웃음이 터진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넘어져 있던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 기술에 도전한다. 경기장은 이내 뜨거운 격려의 박수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평창올림픽을 1년 여 앞둔 3월 1일, 불교계가 주축이 된 '달마오픈 챔피언쉽'에서 펼쳐진 풍경이다.

달마오픈 챔피언쉽(이하 달마오픈)은 스노보드 종목 중 하프파이프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 대회로 국내외 위상이 높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마련된 이번 대회는 특히 올림픽 기준으로 경기장이 준비돼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해 유소년 꿈나무 등 160명이 참여했다.

대회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찬 오후, 경기장 아래에서는 한 스님이 경기 전인 선수들을 부지런히 찾아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올해로 벌써 14년째 대회를 이끌어 온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었다.

호산 스님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달마오픈을 치르게 돼 감회가 새롭다. 이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참여한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이 높아져 꿈을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의 원력으로 2003년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로 시작한 달마오픈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5년부터는 조계종이 주최하는 행사로 격상됐으며, 주관도 달마오픈조직위원회와 대한스키협회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를 통해 국제대회 출전에 필요한 FIS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참여도 대폭 늘어났다.

불자선수인 설송 유해대 선수는 "해외 코칭이 없을 때면 틈틈이 상원사에가서 기도를 한다"며 "호산 스님이 아니었으면 이처럼 많은 보더들이 참가하고 즐기는 대회가 없었을 것이다. 스님 덕분에 한국 스노보드계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국내 최대 · 최장수 스노보드 대회
호산 스님 주축, 불교계 꾸준한 후원
올림픽 앞두고 국가대표 다수 출전
유소년 선수도 함께 타며 꿈 키워

젊은 세대들이 즐겨하는 스노보드 대회를 불교계가 여는 것은 미래세대 포교에도 큰 힘이 될 것을 짐작케 했다.

수원에서 온 도성 백종석 씨(40)는 "결혼하기 전부터 달마오픈에 참여했고, 그 인연으로 결혼했다. 불자인 아내를 만나 불심이 더욱 깊어졌다"며 "아이가 생겨 현재 5살인데, 아이도 나중에 달마오픈에 참여했으면 해서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함께 대회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특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강원지역 사찰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평창 월정사 정념 스님을 비롯해 스님 10여 명과 신도 100여 명이 선수들을 응원했다. 보더들 사이에 스님들과 보살들이 많았지만 어색함은 엿볼 수 없었다.

또 스키장 한편에는 달마오픈을 후원한 사찰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 같은 후원에 경기장 아래에서는 떡볶이와 오뎅 등 무료 분식이 제공되는 등 하나의 축제와 같았다.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동계올림픽 1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대회는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바람도 담고 있다"며 "그동안 불교는 정적인 수행 위주였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움직이는 불교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마오픈에 출전한 국가대표 김호준 선수는 "스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힘을 내 꼭 메달을 따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경기장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이재찬 스키연맹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대회 중에는 호산 스님에 대한 대한체육회 공로패 전달도 진행됐다.

대회 후반 올림픽 코스를 타는 유소년 선수들을 향해 중계진은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시도하는 경험이 이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운다. 이날 대회 후 아이들은 또 성장해 있을 것"이라며 "후원해 준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평창=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품안에서 올림픽 꿈 키우길"

Interview
달마오픈 열어온 호산 스님



"불교의 품 안에서 꿈나무들이 꿈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미래세대 포교가 되지 않을까요?"

경기장에서 만난 호산 스님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스님의 스노보드 경력은 20년이 넘는다. 1995년 인근 스키장에서 무사고 기원 기도를 한 것이 계기였다. 스님은 스키장의 젊은이들과 인연을 맺었고, 이들이 대회를 열어달라고 하여 마련한 것이 달마오픈이었다.

현재 스노보드 달마팀을 만들어 꿈나무 육성에도 나서고 있는 스님은 "불자 수 감소 등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불교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스포츠와 문화 포교 등으로 젊은 불자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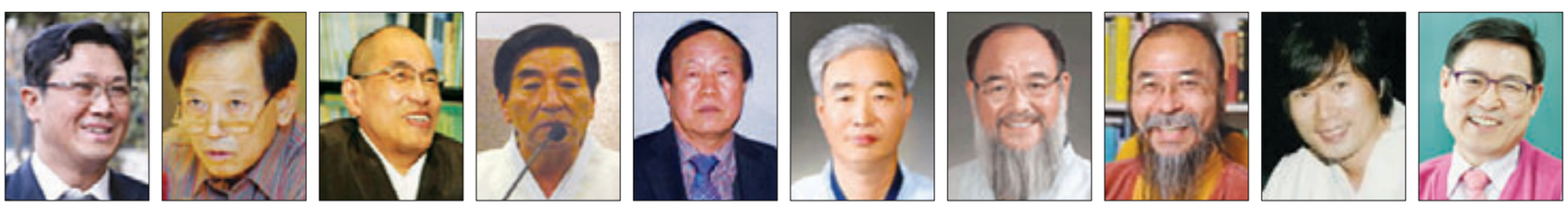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역학(易學), 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과정!!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진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된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분석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이 시대 역학계,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역학 인재양성과정!!



■ 세상은 성실한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때를 알아야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 기존 역학관련 상담 업에 종사하거나 제대로 된 역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
■ 제대로 된 궁합 및 인연법(콩까지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명쾌한 격용 분석방법/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마스터 과정!!
■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능력배양!!
■ 동양미래예측 최고전문가 및 교수요원 양성과정,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터까지 무한반복 학습가능>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근거 없는 비법들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음양오행, 십간십이지,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부터 공부합니다. 동양미래예측학으로서의 사주명리학을 최종 마스터 하는 유일무이한 과정!!
※ 공부를 많이 하신 분에게는 총정리하는 필살기, 초보자에게는 단기간에 나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단기 속성과정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입학식 3월 9일(목) 17:00 ~ **등록금** 1학기 240만원(필수), 2학기 168만원(선택)
일 정 3월9일 ~ 6월 22일, 매주목(木)18:40 ~ 21:30 / 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선택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수료증 학기별 동국대 총장명의 수료증 및 명리 상담사 자격증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 1학기 수료 : FCA 동양미래예측 최고위과정 수료증 – 2학기 수료 : 현대사주학 석하명리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증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 장 소 : 동국대학교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